

## 오가피로부터 Acanthoside D의 분리 및 함량분석

홍성수 · 황지상 · 이선아 · 황방연 · 하광원<sup>1</sup> · 제금련<sup>1</sup> · 성낙선<sup>1</sup> · 노재섭 · 이경순\*

충북대학교 약학대학, <sup>1</sup>식품의약품안전청

## Isolation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Acanthoside D from Acanthopanax Cortex

Sung Su Hong, Ji Sang Hwang, Seon A Lee, Bang Yeon Hwang, Kwan Won Ha,<sup>1</sup>  
Keum Ryon Ze<sup>1</sup>, Rack Seun Seung<sup>1</sup>, Jai Seup Ro and Kyong Soon Lee\*

College of Pharmacy, Chungbuk National University, Cheongju 361-763,

<sup>1</sup>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s, Seoul 122-704, Korea

**Abstract** – The *Acanthopanax* genus belonging to the Araliaceae family is widely used as a traditional medicine having tonic and sedative effects. For the quality control of *Acanthopanax* Cortex, lignan compound, acanthoside D, was isolated from the MeOH extract of *Acanthopanax sessiliflorum* Seeman. (Araliaceae) and identified by the spectroscopic analysis. A quantitative analysis of acanthoside D using HPLC method showed that the average contents were  $0.081 \pm 0.058\%$  in 39 samples collected throughout the regions of Korea.

**Key words** – *Acanthopanax sessiliflorum*, Araliaceae, quantitative analysis of acanthoside D, HPLC.

오가피(五加皮)는 오갈피과(Araliaceae)에 속하는 오갈피나무 *Acanthopanax sessiliflorum* Seeman 또는 기타 동속식물의 뿌리, 줄기 및 가지의 껍질로서 관상 또는 반관상으로 길이 5-10 cm, 지름 5-8 mm, 두께 1 mm정도이고, 바깥면은 황갈색·어두운 회색으로 평坦하며 군데군데 가시가 있거나 또는 그 자국이 있고 비교적 어린 가지의 껍질에는 회백색의 반점이 있다. 안쪽면은 황백색이며 섬유성이므로 자르기 어렵고, 이 약은 특이한 냄새가 있고 맛은 약간 쓰다.<sup>1,2)</sup> 한방에서 오가피는 주로 자양, 강장, 강정, 신경통, 음위, 진경, 근골동통, 산기복통, 요술동통 등의 효능이 있어 주로 강장약으로 신경통, 중풍, 고혈압, 당뇨병 및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의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. 현재까지 알려진 오가피속 식물의 성분으로는 eleutheroside A, B, B<sub>1</sub>, B<sub>4</sub>, C, D, E, I, K, L, M과 chlorogenic acid, sesamin, caffeic acid, β-sitosterol,

oleanolic acid 등이 알려져 있다.<sup>3-12)</sup>

본 연구에서는 생약, 한약재에 대한 품질 표준화의 일환으로 오가피의 lignan 성분 중 하나인 acanthoside D(=eleutheroside E)을 지표물질로 선정하여 오가피의 MeOH 추출물을 각종 solvent를 이동상으로 한 silicagel column chromatography를 실시하여 그 성분을 분리, 구조를 동정하였으며, 전국 각처에서 수집된 39종의 오가피 시료를 50% MeOH로 추출하여 HPLC 법으로 그 함량을 측정하였다. 본 실험은 우수한 오가피의 유통을 위하여 acanthoside D의 함량을 설정하여 품질을 표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.

### 재료 및 방법

**실험재료** – 본 연구에 사용한 시료는 2001년 5월 국내 전 지역에서 시판되고 있는 오가피 39종을 구입하여 마쇄한 후 시료로 사용하였다.

**시약 및 기기** – <sup>1</sup>H- 및 <sup>13</sup>C-NMR은 Varian Unity-

\*교신저자 : Fax : 043-268-2732

300 spectrometer를 사용하였고, ESI-MS는 Finnigan Navigator mass spectrometer를 사용하였다. UV는 JASCO V500 UV/VIS spectrophotometer (Model LE599, U.K.)를, IR은 FT/IR 300E (JASCO) spectr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. Column chromatography용 담체는 silica gel (70-230 mesh, Merck)을, TLC plate는 Kieselgel 60 F<sub>254</sub> plate (0.2 mm, Merck)를 사용하였다. 시약 및 용매는 분석용 특급 또는 1급 시약을 사용하였고, HPLC용 용매는 HPLC grade를 사용하였다. 발색시약으로는 10% vanillin-sulfuric acid를 사용하였다.

**건조감량시험** – 분석용 검체 3g을 미리 무게를 단 칭량병에 넣어 그 무게를 정밀하게 달아 105°C에서 5시간 건조하여 테시케이터(실리카겔)에서 방냉하고 그 무게를 정밀하게 달았다. 다시 이것을 105°C에서 건조하고 1시간마다 무게를 정밀하게 달아 항량이 되었을 때의 감량을 건조감량(%)으로 하였다.

**회분시험** – 미리 백금제 도가니를 500-550°C에서 1시간 강열하여 방냉한 다음 그 무게를 정밀하게 달았다. 분석용 검체 약 2g을 취하여 앞의 도가니에 넣어 그 무게를 정밀하게 달고 처음에는 약하게 가열하고 천천히 온도를 높여 500-550°C에서 4시간 동안 강열하여 탄화물이 남지 않을 때까지 회화하여 방냉한 다음 그 무게를 정밀하게 달았다. 다시 잔유물을 항량이 될 때까지 회화하여 방냉한 다음 그 무게를 달아 회분량(%)으로 하였다.

**산불용성 회분시험** – 회분에 끓은 염산 25 mL를 넣고 5분간 끊어 불용물을 정량용 여과지를 써서 여과하여 취하고 열탕으로 잘 씻어 잔류물을 여과지와 함께 건조한 다음 회분의 항과 같은 조작으로 무게를 미리 단 백금제 도가니에서 3시간 강열하여 테시케이터(실리카겔)에서 방냉하고 그 무게를 달아 산불용성 회분량(%)으로 하였다.

**지표성분의 분리정제** – 오가피 5kg을 건재상에서 구입 후 정확히 감정하여 세말로 하였다. 50% MeOH로 3회 반복 추출하여 MeOH 엑스를 얻었다. 이것을 물과 CH<sub>2</sub>Cl<sub>2</sub>, EtOAc, 수포화 BuOH으로 분획한 후 BuOH층을 CHCl<sub>3</sub>:MeOH:H<sub>2</sub>O = 65:45:10을 이동상으로 한 silicagel column chromatography를 실시하여 5개의 fraction으로 나누었다. Fr.II를 H<sub>2</sub>O → MeOH gradient를 이동상으로 Sephadex LH-20 column chromatography를 실시하여 Fr.II-2에서 지표물질인 acanthoside D를 얻었다(Fig. 1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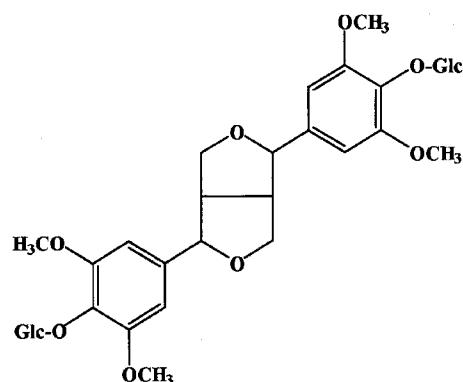


Fig. 1. The structure of Acanthoside D.

**Acanthoside D** – colorless needles; m.p. 269-270°C;  $[\alpha]_D^{25} -18.5$  ( $c=0.5$ , 50% EtOH), UV(log ε),  $\lambda_{max}$  (MeOH) nm: 210.2 (4.81), 276.2 (3.41); IR  $\nu_{max}^{KBr}$  cm<sup>-1</sup>: 3350 (OH), 2932 (C-H), 1591, 1508; ESI-MS (*m/z*): 741 [M-H]<sup>+</sup>; <sup>1</sup>H-NMR (DMSO-*d*<sub>6</sub>, 300 MHz) δ: 3.00-3.80 (m, glc H-2, 6), 3.76 (12H, s, OMe x4), 4.20 (4H, m, H-9, 9'), 4.67 (2H, d, *J*=4.0 Hz, H-7, 7'), 4.88 (2H, br d, *J*=7.0 Hz, glc H-1 x2), 6.66 (4H, s, H-2, 2', 6, 6'); <sup>13</sup>C-NMR (DMSO-*d*<sub>6</sub>, 75 MHz) δ: 54.45 (C-8, 8'), 57.25 (OMe x4), 72.19 (C-9, 9'), 85.92 (C-7, 7'), 105.02 (C-2, 2', 6, 6'), 134.48 (C-1, 1'), 137.93 (C-4, 4'), 153.46 (C-3, 3', 5, 5'), 103.46, 74.99, 77.34, 70.74, 78.06, 61.73 (glc C-1, 6 x2)

**HPLC의 분석조건** – HPLC는 Young-Lin HPLC 9600 System으로서 M930 Solvent Delivery Pump, M720 UV-VIS Absorbance Detector, Autochro-WIN Data System을 사용하였다. Column은 Shiseido ODS (250×4.6 mm, I.D.)를 사용하였고, 이동상으로는 CH<sub>3</sub>CN:H<sub>2</sub>O = 15:85를 사용하였다. HPLC는 실온에서 실시하였고, 용매의 유속은 1 mL/min, UV detector의 파장은 210 nm에서 고정하여 실시하였다.

**검액의 조제** – 오가피를 세말로 하여 약 1.0 g을 정확히 취하고 50% MeOH 10 mL을 가하여 실온에서 sonicator로 1시간 동안 추출하여 이중 1 mL을 취하였다. 이를 0.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후 HPLC로 분석하였다.

**표준액의 조제 및 검량선의 작성** – 오가피로부터 분리한 정량용 acanthoside D 1 mg을 1 mL의 MeOH 용액에 용해하고 이것을 MeOH로 희석하여 0.1 mg/mL, 0.01 mg/mL, 0.001 mg/mL로 만들어 검량선용 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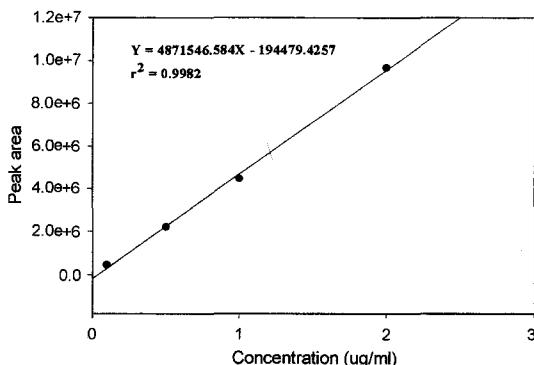


Fig. 2. Calibration Curve of Acanthoside D.

준용액으로 하였고, HPLC를 각각의 표준용액을 취하여 3회 반복하여 HPLC chromatogram을 얻고 이로부터 농도와 peak 사이의 검량선을 작성하였다(Fig. 2).

Acanthoside D의 함량분석 – 전형에서 조제한 각 검액으로 HPLC를 3회 반복 실시하여 얻은 chromatogram의 면적 평균값을 구하여 검량선에서 구한 회귀직선 방정식으로부터 각각 acanthoside D의 함량을 구하였다. 이때 acanthoside D의 peak는 표준품과 직접적으로 spike test를 실시하여 확인하였으며,  $t_R$ 은 13.9 min이었다(Fig. 3).

## 결과 및 고찰

약전 및 생약규격집에 수재되어 있으며 현재 한방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오가피에 대한 표준화 연구의 일환으로, 오가피의 주성분으로 다양한 생리활성이 보고된 acanthoside D를 지표물질로 선정하였다. 표준 품 확보를 위하여 오가피를 50% MeOH로 3회 반복

추출하여 MeOH 엑스를 얻었다. 이것을 물과  $\text{CH}_2\text{Cl}_2$ , EtOAc, 수포화 BuOH으로 분획한 후 BuOH층을  $\text{CHCl}_3:\text{MeOH}:\text{H}_2\text{O} = 65:45:10$ 을 이동상으로 한 silicagel column chromatography를 실시하여 5개의 fraction으로 나누었다. Fr.II를  $\text{H}_2\text{O} \rightarrow \text{MeOH}$  gradient를 이동상으로 Sephadex LH-20 column chromatography를 실시하여 Fr.II-2에서 지표물질인 acanthoside D를 순수분리 정제하였다. 순수하게 단리된 물질은 colorless needles로 m.p. 269°C를 나타내었고, UV spectrum에서는 210 nm에서 흡수극대를 나타내었다.  $^1\text{H-NMR}$  spectrum에서는  $\delta$  6.66에서 singlet으로 4개의 aromatic proton을 관찰할 수 있었고,  $\delta$  3.76에서 4개의 methoxyl[7]에서 기인하는 singlet signal,  $\delta$  4.67에서 2개의 oxymethylene 및  $\delta$  4.20에서 2개의 methylene에서 기인하는 signal이 관찰되어 lignan 화합물로 추정하였으며,  $\delta$  4.88에서는 2개의 glucose에서 기인하는 anomeric proton이  $J=7.0$  Hz로 나타났으며,  $\delta$  3.00-3.80에서는 2개의 glucose에서 기인하는 signal을 관찰할 수 있었다. 또한,  $^{13}\text{C-NMR}$  spectrum에서는 총 17개의 carbon signal을 관찰되어 대청화합물인 liriodendrin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. ESI-MS spectrum에서는  $m/z$  741에서  $[\text{M}-\text{H}]^-$  ion peak를 나타내어 분자량 742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이상의 각종 spectral data를 검토하여 compound 1은 (-)-syringaresinol-di-O- $\beta$ -D-glucopyranoside인 acanthoside D로 추정하고 문헌과 비교하여 구조를 동정하였다.<sup>13,14)</sup>

순도시험결과 목부조직 및 가는 가지는 대한약전 제7개정의 규정인 2.0% 이하에는 부적합하였고, 이풀은 1.0% 이하에 적합하였다. 회분시험은 중국산과 국산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각각의 측정결과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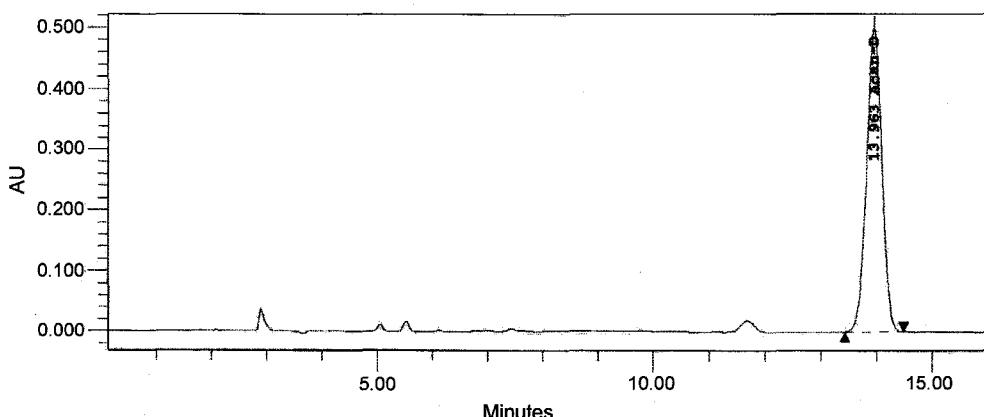


Fig. 3. HPLC chromatogram of standard Acanthoside D.

**Table I.** Acanthopanax Cortex의 목부조직 및 가는가지, 이풀, 건조감량, 회분, 산불용성회분 및 acanthoside D의 함량

Sample	acanthoside D 함량(%)	목부조직 및 가는가지(%)	이풀 (%)	건조감량 (%)	회분함량(%)		산불용성회분 함량(%)	Collection Place
					중국산	한국산		
OGP 1	0.129	10.61	-	10.41	8.48		0.58	Kwangju
OGP 2	0.220	3.14	-	7.32	15.3		0.94	Seoul
OGP 3	0.059	17.27	-	8.33	6.82		0.49	Seoul
OGP 4	0.183	6.77	-	7.73	12.35		1.32	Keumsan
OGP 5	0.082	10.88	-	9.75	10.52		0.63	Seoul
OGP 6	0.019	9.61	-	8.88	10.06		3.64	Daejon
OGP 7	0.151	2.62	-	6.67	12.18		0.84	Daegu
OGP 8	0.047	0.82	-	8.97	6.53		0.6	Cheongju
OGP 9	0.216	0.95	-	9.84	16.39		1.44	Jeonju
OGP 10	0.252	0.26	-	6.77	16.2		0.28	Seoul
OGP 11	0.159	1.00	-	8.37	17.2		0.82	Jechon
OGP 12	0.075	2.15	-	6.9	13.02		0.9	Andong
OGP 13	0.006	4.03	-	8.52	7.79		0.74	Seoul
OGP 14	0.079	1.83	-	7.17	9.08		0.56	Daegu
OGP 15	0.084	4.01	-	6.99	13.17		0.52	Andong
OGP 16	0.109	2.93	-	6.77	11.55		0.65	Kangnung
OGP 17	0.096	8.05	-	10.92	9.05		0.59	Hwasoon
OGP 18	0.014	3.05	-	7.9	8.37		1.96	Jeju
OGP 19	0.089	2.39	-	7.18	10.07		0.75	Daegu
OGP 20	0.133	0.92	-	6.52	19.72		0.8	Seoul
OGP 21	0.022	17.19	-	5.37		4.96	0.3	Seoul
OGP 22	0.007	23.32	-	5.81		4.86	0.29	Seoul
OGP 23	0.011	2.57	-	7.32		4.86	0.27	Seoul
OGP 24	0.059	5.73	-	7.34		2.74	0.2	Keumsan
OGP 25	0.076	59.29	-	7.3		3.86	0.19	Chuncheon
OGP 26	0.017	3.15	-	10.93		4.94	0.78	Cheongju
OGP 27	0.005	3.64	-	6.29		5.1	0.47	Seoul
OGP 28	0.009	4.03	-	7.45		4.64	0.53	Seoul
OGP 29	0.004	4.63	0.5	6.74		4.3	0.46	Seoul
OGP 30	0.133	2.55	-	6.64		3.82	0.67	Seoul
OGP 31	0.127	6.16	-	7.92		9.79	0.9	Youngchon
OGP 32	0.032	3.45	-	7.42		5.58	0.54	Seoul
OGP 33	0.074	2.87	-	7.58		7.86	0.81	Daegu
OGP 34	0.010	1.86	-	7.49		5.41	0.72	Daejeon
OGP 35	0.007	9.17	-	9.3		5.06	0.6	Seoul
OGP 36	0.045	44.61	-	7.02		3.27	0.4	Kwangju
OGP 37	0.013	2.77	-	6.21		5.7	0.95	Hwamyang
OGP 38	0.059	53.53	-	6.25		3.42	0.47	Pusan
OGP 39	0.107	1.79	-	7.17		8.75	1.34	Jecheon
Average ± S.D.	0.081±0.058	8.86±8.56	0.01	7.68±1.04	11.7 ± 3.02	5.21 ± 1.25	0.73±0.32	

중국산 11.7±3.02% (n=20), 국산은 5.21±1.25% (n=19)를 나타내 국산은 대한약전 제7개정의 규정인 8.0% 이하에 적합하였으나 중국산은 부적합하였다. 산

불용성시험결과 평균 0.73±0.32% (n=39)로 나타났으며 대한약전 제7개정의 1.0% 이하에 대체로 적합하였으나, 중국산 일부에서 규정을 벗어나는 것이 있었

다. 따라서, 회분 및 산불용성 회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. 건조감량 시험결과 평균  $7.68 \pm 1.04\%$  ( $n=39$ )로 나타났으며 12% 이하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(Table I).

Acanthoside D는 오가피의 주성분으로 각종 생리활성이 보고되어 있으며, HPLC를 이용하여 쉽게 정량할 수 있으므로 지표성분으로 설정하여 39종의 시료에 대하여 acanthoside D의 함량을 측정하였다. Column으로는 Shiseido ODS ( $250 \times 4.6$  mm, I.D.)를 사용하였고, 여러 용매계를 이용하여 HPLC chromatogram을 얻고 가장 분리능이 양호한 용매계로서  $\text{CH}_3\text{CN}:\text{H}_2\text{O} = 15:85$ 를 사용하였으며, 또한 검출파장으로서는 최대흡광도인  $210\text{ nm}$ 를 사용하였다. 이 조건에서 표준품인 acanthoside D는  $t_{\text{R}} = 13.9\text{ min}$ 에서 나타났으며, 다른 peak와 양호하게 분리되므로 적합한 분석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. 지표물질을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한 결과 회귀직선 방정식은  $y = 4871546.584x - 194479.426$  ( $r^2 = 0.998$ )로 나타났으며, 직선성이 인정되었다.

전국각지에서 구입한 39종의 오가피(OGP01-OGP39)에 대해 3회 반복 실험하여 상기 회귀직선 방정식으로부터 건조증량(g)중의 acanthoside D의 함량(mg)을 구하여 %를 산출하였다(Table 1). 오가피중의 acanthoside D 함량은 평균  $0.081 \pm 0.058\%$  ( $n=39$ )를 나타내었으며, 모든 시료에 함유되어 있었지만 시료에 따라 다소간의 편차가 있었다.

## 결 론

오가피의 lignan성분 중 하나로서, 다양한 생리활성이 보고된 acanthoside D를 지표물질로 선정하여 오가피의 MeOH 추출물로부터 순수분리하여 구조를 동정하였으며, HPLC에 의한 품질평가법을 확립하였다. 전국 각지역에 유통되고 있는 오가피 39종(OGP01-OGP39)을 수집하여 순도시험결과 목부조직 및 가는 가지  $8.86 \pm 8.56$  ( $n=39$ )는 대한약전 제7개정의 규정인 2.0% 이하에는 부적합하였는데 현재 유통되는 오가피 중 몇몇은 가지채로 판매되고 있었다. 이를은 1.0% 이하에 적합하였다. 회분시험은 중국산  $11.7 \pm 3.02\%$  ( $n=20$ ), 국산은  $5.21 \pm 1.25\%$  ( $n=19$ )를 나타내 국산은 대한약전 제 7개정의 규정인 8.0% 이하에 적합하였으나 중국산은 부적합하였다. 산불용성 시험결과 평균  $0.73 \pm 0.32\%$  ( $n=19$ )로 나타났으며 대한약전

제7개정의 1.0% 이하에 대체로 적합하였으나, 중국산 일부에서 규정을 벗어나는 것이 있었다. 따라서, 회분 및 산불용성 회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. 건조감량 시험결과 평균  $7.68 \pm 1.04\%$ 로 나타났으며 12% 이하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. 또한, acanthoside D 함량을 측정한 결과 평균  $0.081 \pm 0.058\%$  ( $n=39$ )을 나타내었으며, 오가피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acanthoside D의 함량기준을 0.01%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.

## 사 사

본 연구는 2001년도 생약·한약재 품질표준화연구(식품의약품안전청)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, 이에 감사드립니다.

## 인용문헌

- 한국약학대학협의회 약전분과회(1999), 대한약전 제7개정, p. 1078. 문성사, 서울.
- 김창민, 신민교, 안덕균, 이경순(1998) 원역중약대사전, pp. 3907-3914. 도서출판 정담, 서울.
- Kim, S. K., Kim, Y. G., Lee, M. K., Ham, J. S., Lee, J. H. and Lee, H. Y. (2000) Comparison of biological activity according to extracting solvents of four Acanthopanax root bark. *Korean J. Medicinal Corp. Sci.* 8(1): 21-28.
- Ahn, J. K., Lee, W. Y., Oh, S. J., Park, Y. H., Hur, S. D. and Choi M. S. (2000) The Contents of Chlorogenic acid and Eleutherococcus senticosus (Rupr. et Maxim.) Harms. *Jour. Korean For. Soc.* 89(2): 211-222.
- Miyakoshi, M., Ida, Y., Isoda, S. and Shoji, J. (1993) 3 alpha-hydroxyoleanane-type triterpene glycosyl esters from leaves of *Acanthopanax spinosus*. *Phytochemistry* 34(6): 1599-602.
- Sawada, H., Miyakoshi, M., Isoda, S., Ida, Y. and Shoji, J. (1993) Saponins from leaves of *Acanthopanax sieboldianus*. *Phytochemistry* 34(4): 1117-1121.
- Zhao, Y. Q., Yang, S. S., Liu, J. H. and Zhao, G. R. (1993) Chemical constituents of *Acanthopanax senticosus* (Rupr. et Maxim.) Harms. *Zhongguo Zhong Yao Za Zhi* 18(7): 428-429.
- Wang, J. Z., Tsumura, H., Ma, N., Shimura, K. and Ito, H. (1993) Biochemical and morphological alterations of macrophages and spleen cells produced by antitumor polysaccharide from *Acanthopanax obovatus* roots. *Planta Med.* 59(1): 54-58.

9. Wang, J. Z., Tsumura, H., Shimura, K. and Ito, H. (1992) Antitumor activity of polysaccharide from a Chinese medicinal herb, *Acanthopanax geraldii* Harms. *Cancer Lett.* 65(1): 79-84.
10. Kohda, H., Tanaka, S. and Yamaoka, Y. (1990) Saponins from leaves of *Acanthopanax hypoleucus* Makino. *Chem. Pharm. Bull.* 38(12): 3380-3383.
11. Nishibe, S., Kinoshita, H., Takeda, H. and Okano, G. (1990) Phenolic compounds from stem bark of *Acanthopanax senticosus* and their pharmacological effect in chronic swimming stressed rats. *Chem Pharm Bull.* 38(6): 1763-1765.
12. Wagner, H., Heur, Y. H., Obermeier, A., Tittle, G. and Bladt, S. (1982) Die DC- and HPLC-Analyse der Eleutherococcus Droge. *Planta Med.* 44: 193-198.
13. Abe, F. and Yamauchi, T. (1988) 9 $\alpha$ -Hydroxypinoresinol, 9 $\alpha$ -Hydroxymedioresinol and related lignins from *Allamanda nerifolia*. *Phytochemistry* 27(2): 575-577.
14. Vermes, B., Seligmann, O. and Wagner, H. (1991) Synthesis of Biologically Active Tetrahydrofurofuran-lignan-(Syringin, Pinoresinol)-Mono- and Bis-Glucosides. *Phytochemistry* 30(9): 3087-3089.

(2001년 11월 16일 접수)